

자료제공 : 2024. 4. 17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

토지관리과장

이계문

02-2133-466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1쪽

토지정책팀장

지미종

02-2133-4662

서울시, 주요 재건축단지 등(강남, 영등포, 양천, 성동)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

-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-

-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(강남, 영등포, 양천, 성동) 총 4.57 km^2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지정했다.
 - 대상 지역은 ▲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▲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▲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▲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~4구역이다.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.
-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.
- 서울시는 “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”이라며 “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”고 말했다.